

스포츠웨어에 표현된 니트디자인의 미적 특성

하 승 연 · 이 연 희 · 박 명 자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I. 서론

스포츠웨어는 현대사회의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으로 단순한 운동복의 수준을 넘어 우리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점차 정착되고 발전되었다. 특히 현대 패션은 다기능성이 부각된 의류의 수요가 증가되고, 스포츠웨어와 캐주얼웨어의 혼합, 스포츠웨어의 디테일이나 이미지를 도입한 일상복의 확대 등으로 스포츠패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한은주, 2002). 스포츠웨어의 개념은 미국에서 출발하여 발전되어왔다. 스포츠웨어는 크게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기능성과 활동성을 갖춘 의복인 액티브 스포츠웨어와 스포츠를 관전할 때 입었던 편안한 의복의 개념인 스펙테이터 스포츠웨어로 나눌 수 있으며, 김이영(2003)에 의하면 Play wear(Do sports - Technical wear)와 Sporty wear(See sports - Before & after wear)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러한 스포츠 웨어에 관한 국내 연구는 현재까지 꾸준히 되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광범위한 스포츠웨어의 개념이 아니라 특정 스포츠웨어로 집중된 연구가 점차 늘어나는 경향이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 중에서 스포츠패션의 소재로서 많은 장점을 지닌 니트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세기 스포츠웨어의 발달과정을 고찰하며, 그 발달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니트디자인에 대한 미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0세기 스포츠웨어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니트디자인의 고찰을 통해 현대 스포츠웨어에서 니트디자인이 차지하는 중요도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범위는 스포츠웨어에서 니트디자인이 나타나기 시작한 191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20세기로 제한하였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이론적 배경과 사진자료는 국내외의 복식사와 패션 관련 참고문헌을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스포츠웨어에 나타난 니트디자인의 사진자료 107장 중에서 패션전문인 2인에 의하여 시각적으로 니트임이 확인되는 60장의 사진을 최종 추출하였다. 스포츠패션에 대한 분석이 문헌에 제시된

경우에는 내용을 참조하였고, 분석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분석대상 사진을 모아놓고 빈도수에 따라 미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스포츠웨어에 나타나는 니트디자인의 미적 특징에 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형태와 아이টে에 있어서는 1970년대를 기점으로 변화하는데, 70년대 이전에는 액티브 스포츠웨어와 스펙테이터 스포츠웨어로 착용했던 가디건, 폴오버, 터틀넥과 모자, 셔츠, 조끼, 원피스 등이 주를 이루던 것이, 70년대 이후에는 일상복과 스포츠패션 간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등장한 기능성 위주의 레깅스, 사이클 쇼츠, 트레이닝복, 레오타드, 레그 워머 등이 추가되었다.

둘째, 소재 면에서는 20년 주기로 합성섬유나 신소재가 개발되어 스포츠웨어에 나타난 니트 디자인에 큰 변화가 있었다. 1910년대의 고무편 니트 수영복, 1930년대의 나일론, 1950년대의 라이크라, 1970년대의 스트레치사와 스판덱스, 1990년대의 신축성 섬유개발이 그 예이다. 니트의 종류는 1950년대 이전에는 횡편니트가 주를 이루다가, 70년대에는 횡평과 환편이 공존하다가 70년대 이후에는 환편니트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셋째, 색상은 1950년대 이전까지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50년대 스키복부터 색상이 화려해지고, 50년대부터 색상이 비비드(vivid)해지다가 70년대에는 금속성 색상이, 90년대에 들어서는 네온 컬러(neon color)가 등장했다.

넷째, 디테일로는 스티치 장식이나 스트랩이 사용되었고, 문양면에서 스트라이프 패턴, 기하학 무늬 등이 이용되었으며, 액세서리로 벨트, 포켓, 지퍼, 후드, 부츠 등을 이용하여 스포티브 감각을 표현하였다.

다섯째, 대표적인 디자이너로는 스포츠패션의 선구적 역할을 한 1920-1930년대의 코코 샤넬과 최초로 미국의 캐주얼화를 이룩한 1930-1940년대의 클레어 맥카텔이 있다. 이들은 모두 의복에 니트를 이용함으로써 실용성, 편안함 그리고 개성표현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1960년대에는 발렌시아가, 앙드레 쿠레쥬, 피에르 가르방, 이브 생 로랑에 의해서 다양한 스포티브 이미지가 표현되었으며, 스포츠웨어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에는 랄프 로렌, 도나 카란, 노마 카말리, 조지오 아르마니 등의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스포츠 감각이 가미된 포멀웨어를 발표되었다.

IV. 결론

스포츠웨어의 형태와 아이템, 소재, 색상, 디테일, 문양, 대표적 디자이너에 관한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의 요약과 결과로부터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70년대 이후에는 일상복과 스포츠웨어 간의 구분이 없어졌다. 20년 주기로 합성섬유나 신소재가 개발되어 스포츠웨어에 나타난 신소재는 니트디자인에 큰 변화를 주었다. 50년대부터 색상이 비비드 해지다가 70년대에는 금속성 색상이, 90년대에 들어서는 네온 컬러가 등장했다. 다양한 디테일과 문양으로 스포티브 감각이 표현되었다. 대표적인 디자이너로는 코코 샤넬과 클레어 맥카텔, 발렌시아가, 앙드레 꾸레쥬, 피에르 가르탱, 이브 생 로랑, 랄프 로렌, 도나 카란, 노마 카말리, 조지오 아르마니 등으로, 니트디자인의 미적 특성을 스포츠웨어에 표현하였다.

참고문헌

- 김이영 (2003). 스포츠웨어의 디자인 프로세스. *Fiber Technology and Industry* 제 7권 4호.
- 김지현 (2002). 현대 패션에 나타난 스포티브 룩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준희, 김민자 (2003), 1990년대 이후의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트렌드분석, *Fiber Technology and Industry* 제7권 4호
- 이선명 (2000). 편물 전통문양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선희, 이순홍 (2003). 니트의 편직기법에 의한 디자인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 53권 1호.
- 정현숙 역. Davis Bond (1992). 20세기 패션. 서울; 경춘사.
- Charlie Lee-Potter (1984). *Sportswear in Vogue since 1910*. Abbeville Press, Inc.
- Gerda Buxbaum (1999). *Ic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Prestel.